



너의 죄를 고백하라

존 스토트 지음 | 홍종락 옮김 | 홍성사 펴냄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분량이 많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원서는 그가 40대 초반의 교구목사이던 1964년에 출간되었다. 원서는 “회해의 길”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으며, 같은 성공회 소속의 신학자인 필립 D. 휴스가 편집한 기독교 기초를 시리즈의 한 권으로 간행된 것이다.

요즘 들어 한국 교회가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말을 흔하게 듣는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는커녕 세상의 염려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 교회의 존폐를 파지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고 우현홍 목사는 ‘벼랑 끝에 선 한국 교회’라고 개탄한 적이 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고 해명할 수 있겠지만, 디트리히 본회퍼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 없이 쉽게 선포되는 용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정당화해주는 값싼 은혜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설교자는 목회사역을 시작하면서 ‘죄(sin)’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결단하고서 늘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다. 이처럼 긍정과 행복, 번영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성경적 교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방해왔기 때문에 오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탐이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 고백의 문제 혹은 회개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C. S. 루이스의 말처럼 회개란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주시기도 쉽지 않지만,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솔직히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때에 존 스토트의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분량이 많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원서는 그가 40대 초반의 교구목사이던 1964년에 출간되었다. 원서는 “회해의 길”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으며, 같은 성공회 소속의 신학자인 필립 D. 휴스가 편집한 기독교 기초를 시리즈의 한 권으로 간행된 것이다.

비록 출간된 지 반세기가 차가고 있는 책이지만 본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여전히 신선하고 적실하게 읽히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스토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충성스럽고 신실한 작가가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한 죄고백과 용서서의 진리를 본서 속에서 잘 해명해주고 있다. 그의 모든 저술이 그러하듯이 본서 역시도 명쾌하게 쓰인 책일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서는 머리말, 결론 그리고 다섯 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공식적인 성공회의 선언문들을 소개하는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에서 스토트는 죄가 불쾌한 사실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해야 할 이유를 말한다. 기독교야말로 죄를 진지하게 다루고 죄에 대해 만족할 만한 치료책을 제시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의해야 하는 세 가지 진리로써 “우리는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정죄함을 받고 있으나, 죄 사함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죄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8쪽). 죄 사함은 죄 고백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백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고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스토트의 과제이다.

죄 고백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해야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리이다. 이 원리에 의하면 세 가지 종류의 죄에 따른 세 가지 종류의 고백을 구별할 수 있다(스토트는 말한다. 하나님께만 법한 은밀한 죄에 대한 은밀한 고백, 하나님뿐 아니라 한 개인이나 두세 사람에게 법한 죄에 대한 사적인 고백, 그리고 단체 혹은 공동체나 지역 교회 회중 전체에게 법한 것이어서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공적인 고백 등이 그것이다. 1장에서 스토트는 하나님께 하는 은밀한 고백에 대해 다룬다. 스토트는 죄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성경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것을 인정하고 비통해하기 위해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숨기면 행동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죄, 이기심, 수치심은 있는 그대로 처벌하게 노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 정하신 방식은 의도적으로 죄를 기약하고,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그분이 그 이들의 죽음의 공포로 그 죄들을 덮으시는 것이다. 죄 사함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짓 없이 그분의 거룩한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스토트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누우시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죄를 고백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죄를 거부하고 물리침으로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고백은 즉각적이고 자세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구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기 위함이며, 그다음 그것을 극복할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들을 버리기 위함이다(31, 32쪽).

2장에서는 피해 당사자에게 하는 사적인 고백을 다룬다. 모든 악행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지만 그중 일부는 동료 인간에게도 범한 죄일 경우가 있는데 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스토트는 이 장에서 세 가지의 무에 대해서 다룬다. 우선 이웃에게 죄를 범했다면 그 이웃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20백). 두 번째로 다른 누군가에게 행한 악한 행동이나 상처 모두에 대해 힘이 닿는 대로 배상과 보상을 할 준비를 하고 그들과 화해를 해야 한다(배상). 세 번째 의무는 꾸짖음과 회복에 대한 것인데, 우리에게 잘못된 이들을 회개에 이끌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스토트는 꾸짖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며 상대의 영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상대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

해서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신을 갖는다. 스토트에 의하면 “회개를 건너뛰는 용서는 사람이 아니라 감성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52쪽).

3장에서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고백에 대해 스토트는 설명한다. 이런 공적인 고백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성공회 예배 모범에 따라 예배 첫머리에 모든 성도들이 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 회회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 교회가 드리는 고백이고, 일반적인 죄성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죄들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문체에 대해서는 스토트는 신중하게 다루었다. 스토트는 그 위험성을 잘 지적하고 나서 이런 고백이 필요할 때는 서로 함께 하려 하는 개인 신자들 사이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세 번째 형태가 진정한 의미에서 공적인 고백인데 이는 공동체에 범한 죄에 대해 그 공동체에게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수 7:19, 마 18:15-17). 교회는 그런 공적인 죄인들에 대하여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스토트에 의하면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한다. 또한, 현대 교회가 약하고 무기력해진 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징계의 부재가 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파문의 목적은 죄인에 대한 합당한 벌을 주고, 문제를 개선하고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그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본서의 후반부인 4장과 5장에서 성공회 사제인 스토트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인 사제에게 하는 비밀 고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비밀 고백은 가톨릭교회와 영어로 가톨릭교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관행일 뿐 아니라 성공회 교인들도 추천해는 관행이다.

듣게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4장에서 논박하고, 신자들의 실제적인 삶에 유의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5장에서 반박을 한다.

이 부분은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가 고해 성사에 대해 성장적이고, 역사적이며, 신학적으로 잘 논파하고 있는 탁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관련된 주요 본문들(마 16:19; 18:18; 요 20:23 등)에 대한 해명도 아주 건전하고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이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

존 스토트는 본서 가운데서 죄 고백과 죄 사함의 문제를 다루되 오직 하나님 말씀의 빛에서 철저히 다루고자 했기에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의 확신을 할 수 있으며,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모두 죄 고백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죄 고백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점과 죄 사함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권면해준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스토트의 권면들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곱씹어 볼 뿐 아니라 그가 권하는 대로 성장적인 죄 고백을 실천하기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사회함의 은혜가 주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고, 가룩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6



이성웅 개명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후에 알스테트담 자유대학교 신학부에서 수학했으며,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M. Th., Ph. D.)를 취득했다. 대신대학교 영인전문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구 신학대학교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론(부흥과개혁사)이 있다.

1등 칸의 도착지

미국 서부의 한 시골 처녀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뉴욕에 가게 되었다. 너무 자랑스럽고 흥분되어 삼등석 비행기 표를 사서는 일등석에 앉았다. 승무원이 삼등석으로 가라고 아무리 권유해도 뉴욕과 같이 큰 도시에 가는 사람은 일등석을 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사무장이 와서 설득해도 막무가내였다.

우연히 기장이 지나가던 승객과 육신거리리는 승무원에게 연유를 물었다. 상황을 파악한 기장이 그 승객 귀에다 대고 낮은 소리로 몇 마디 했다.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녀는 짐을 챙겨 3등 칸으로 급히 옮겼다. 승무원들이 너무 신기해서 무슨 말을 했기에 그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기장에게 물었다. “간단하지, 1등 칸은 뉴욕으로 안 간다 했지!” 6



교훈 쫓겨나지 않으려면 3등 칸에 타라 (눅 14:8)

